뉴시티교회 초등부

리딩지저스

2026. 8. 24. (월) — 8. 29. (토)

아침마다 새로우니

역대하 36장 · 하박국서 · 예레미야 41~52장 · 예레미야애가 1~3장

이름 _____

나의 이번 주 마니또를 잊지 말고 사랑과 관심으로 챙겨줍시다!ㅎㅎ

여는 글

이번 주,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지난주 토요일에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것을 읽었지요. 이번 주는 그 무너진 자리를 걸어요. 남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애굽으로 도망가고, 지친 서기관 바룩은 하나님께 위로를 받고, 예레미야서는 감옥에서 나온 왕 이야기로 끝나요. 그리고 토요일에는 무너진 성 옆에서 우는 노래, 예레미야애가를 읽어요. 그런데 그 눈물의 책 한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시므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다 무너진 것 같은 날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아침마다 새롭게 찾아와요. 이번 주, 그 사랑을 아침마다 새로 받는 한 주가 되길 바라요!

이번 주 한눈에

6일간의 여정

01
8월 24일 (월)
없어도 기뻐하는 믿음

02
8월 25일 (화)
듣고 싶은 말만 들으면

03
8월 26일 (수)
나를 위한 큰 일을 찾지 말라

04
8월 27일 (목)
찾아도 찾지 못할 죄

05
8월 28일 (금)
감옥에서 나온 왕

06
8월 29일 (토)
아침마다 새로운 사랑

하박국 1장, 2장, 3장

8월 24일 (월)

오늘의 말씀

1장

2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3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대저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4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공의가 굽게 행함이니이다

2장

1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그리하였더니

2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 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3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찌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녕 응하리라

4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3장

17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에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18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19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영장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8월 24일 (월)

없어도 기뻐하는 믿음

기도로 시작합니다.

오늘 나에게 가장 와닿은 말씀 구절을 적어 보세요

오늘의 묵상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따져 물었습니다. "하나님, 나쁜 일이 이렇게 많은데 왜 가만히 계세요?" 하나님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고 대답하셨습니다. 하박국은 파수대에 올라가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렸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해 기뻐하리라." 상황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는데 하박국이 바뀐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원하는 답을 다 받는 것이 아니라, 대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꼭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서 아버지를 끝까지 믿으셨고, 그 믿음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생각 & 적용 질문

갖고 싶은 것이 없거나,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속상했던 적이 있나요? 그래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한 가지 적어 보고, 오늘 하나님께 감사할 것 세 가지를 적어 보세요.

기도로 마칩니다.

예레미야 42장, 43장

8월 25일 (화)

오늘의 말씀

42장

1 이에 모든 군대의 장관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아와

2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이 남아 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소서 당신이 목도하시거니와 우리는 많은 중에서 조금만 남았사오니

3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의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4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너희에게 고하리라

5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는 우리 중에 진실 무망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6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고 좋지 아니함을 물론하고 청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7 십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8 그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대장관과 백성의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부르고

9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보내어 너희의 간구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가라사대

10 너희가 이 땅에 여전히 거하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니라

11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그 두려워하는 바벨론 왕을 두려워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여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 말라

12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리니 그로도 너희를 긍휼히 여기게 하여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 보내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43장

1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게 하신 이 모든 말씀을 다 말하매

2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및 모든 교만한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여 가로되 네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는 애굽에 거하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3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꼬드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인의 손에 붙여 죽이며 바벨론으로 잡아가게 하려 함이니라 하고

4 이에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대 장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땅에 거하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5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대장관이 유다의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열방 중에서 유다 땅에 거하려하여 돌아온자

6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넘겨 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영솔하고

7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 이러하였더라

8월 25일 (화)

듣고 싶은 말만 들으면

기도로 시작합니다.

오늘 나에게 가장 와닿은 말씀 구절을 적어 보세요

오늘의 묵상

예루살렘이 무너진 뒤 남은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부탁했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하나님께 여쭈어 주세요. 무엇이든 꼭 따르겠습니다." 열흘 뒤에 하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이 땅에 그냥 머물러라. 바벨론 왕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자 예레미야를 거짓말쟁이라고 부르고, 애굽으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하나님께 묻기는 했지만 사실은 이미 답을 정해 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듣고 싶은 말만 들으면 하나님이 바로 앞에서 길을 비춰 주셔도 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시면서 "보지 못하는 자는 보게 하고, 본다고 하는 자는 맹인이 되게 하려고 왔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눈을 열어 주시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생각 & 적용 질문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이미 내 마음대로 하기로 정해 놓았던 적이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를 때, 그래도 순종하고 싶은 것 한 가지를 적어 보세요.

기도로 마칩니다.

예레미야 45장, 46장

8월 26일 (수)

오늘의 말씀

45장

1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제 사년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의 구전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가로되

2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3 네가 일찍 말하기를 슬프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치 못하다 하도다 하셨고

4 또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나의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나의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이러하거늘

5 네가 너를 위하여 대사를 경영하느냐 그것을 경영하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그러나 너의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로 생명 얻기를 노략물을 얻는 것같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46장

27 내 종 야곱아 두려워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원방에서 구원하며 네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히, 정온히 거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28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하나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열방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아주 멸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공도로 징책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8월 26일 (수)

나를 위한 큰 일을 찾지 말라

기도로 시작합니다.

오늘 나에게 가장 와닿은 말씀 구절을 적어 보세요

오늘의 묵상

바룩은 예레미야가 말하는 것을 평생 받아 적은 서기관이었습니다. 나라는 무너지고 자기는 애굽까지 끌려가자 바룩은 탄식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고통에 슬픔까지 더하셨어요." 하나님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네가 너를 위해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대신 어디로 가든지 생명을 지켜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폭풍을 없애 주시는 대신 폭풍 속에서 바룩을 지켜 주셨습니다. 바룩이 자기를 위해 쌓은 것은 남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위해 받아 적은 두루마리는 성경이 되어 지금 우리 손에 있습니다. 예수님도 자기를 위해 큰 일을 찾지 않으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오셨습니다.

생각 & 적용 질문

친구들보다 더 돋보이고 싶어서 애썼던 적이 있나요? 나를 자랑하는 큰 일 대신, 오늘 하나님을 위해 조용히 할 수 있는 작은 섬김 한 가지를 적어 보세요.

기도로 마칩니다.

예레미야 50장

8월 27일 (목)

오늘의 말씀

50장

4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 그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그와 함께 유다 자손이 돌아오되 그들이 울며 그 길을 행하며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5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어버리지 아니할 영영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자 하리라

6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작은 산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7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은 여호와 곧 의로운 처소시며 그 열조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 하였음인즉 우리는 무죄하다 하였느니라

17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앗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뼈를 꺾도다

18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앗수르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 왕과 그 땅을 벌하고

19 이스라엘을 다시 그 목장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먹을 것이며 그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산에서 만족하리라

20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발견치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나의 남긴 자를 사할 것임이니라

33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도다 그들을 사로잡은 자는 다 그들을 엄히 지켜 놓아주지 아니하거니와

34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니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결코 그들의 원을 펴서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거민으로 불안케 하리라

8월 27일 (목)

찾아도 찾지 못할 죄

기도로 시작합니다.

오늘 나에게 가장 와닿은 말씀 구절을 적어 보세요

오늘의 묵상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벌하실 때 바벨론을 몽둥이처럼 쓰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바벨론도 자기 죄 때문에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벌을 주시는 중에도 자기 자녀를 괴롭힌 자들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심판의 말씀 한가운데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그 날에는 이스라엘의 죄를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지 못하리라." 왜 죄가 없어질까요? 우리가 착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니"라고 하셨습니다. 죄를 잊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값을 치러서 지워 주시는 것입니다. 그 강한 구속자가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다 치르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 죄를 찾으려 해도 찾지 못하십니다.

생각 & 적용 질문

잘못한 일이 떠올라서 마음이 무거웠던 적이 있나요? 예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고 용서받고 싶은 일 한 가지를 적어 보고, 용서받은 사람답게 오늘 할 수 있는 일도 적어 보세요.

기도로 마칩니다.

예레미야 51장, 52장

8월 28일 (금)

오늘의 말씀

51장

15 여호와께서 그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16 그가 목소리를 발하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17 사람마다 우준하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의 만든 신상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18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시는 때에 멸망 할 것이나

19 야곱의 분깃은 이같지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 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52장

1 시드기야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이십일세라 예루살렘에서 십일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립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2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3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 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에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매

4 시드기야 구년 시월 십일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을 대하여 진을 치고 사면으로 흉벽을 쌓으매

5 성이 시드기야 왕 십일년까지 에워싸였더니

6 그 사월 구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식물이 진하였더라

7 갈대아인이 그 성읍을 에워쌌더니 성벽을 깨뜨리매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곁문 길로 도망하여 아라바길로 가더니

31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지 삼십 칠년 곧 바벨론 왕 에윌므로닥의 즉위 원년 십이 월 이십 오일에 그가 유다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32 그에게 선히 말하고 그의 위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위보다 높이고

33 그 죄수의 의복을 바꾸게 하고 그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34 그의 쓸 것은 날마다 바벨론 왕에게서 받는 정수가 있어서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8월 28일 (금)

감옥에서 나온 왕

기도로 시작합니다.

오늘 나에게 가장 와닿은 말씀 구절을 적어 보세요

오늘의 묵상

예레미야서 마지막 장은 예루살렘이 무너진 이야기를 다시 한 번 자세히 들려줍니다. 시드기야 왕은 붙잡혀 눈이 뽑히고, 성전은 불에 타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책의 마지막 네 절이 뜻밖입니다. 포로로 잡혀간 지 37년이 되던 해, 감옥에 갇혀 있던 여호야긴 왕이 풀려나 죄수 옷을 벗고 왕의 식탁에 앉았습니다. 무너짐만 기록한 것 같은 책이 석방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벌하시지만 영원히 버리지는 않으십니다. 여호야긴이 풀려난 날은 앞으로 풀려날 모든 포로를 미리 보여 주는 날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이 여호야긴을 지나 예수님께 이릅니다. 예수님은 죄의 감옥에 갇힌 우리를 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식탁에 앉혀 주시는 분입니다.

생각 & 적용 질문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아직 응답이 없어서 포기하고 싶은 기도 제목이 있나요? 하나님은 끝까지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 밤 다시 드릴 기도 제목을 한 줄로 적어 보세요.

기도로 마칩니다.

예레미야애가 1장, 3장

8월 29일 (토)

오늘의 말씀

1장

1 슬프다 이 성이여 본래는 거민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히 앉았는고 본래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고 본래는 열방중에 공주 되었던 자가 이제는 조공드리는 자가 되었도다

2 밤새도록 애곡하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여 사랑하던 자 중에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도 다 배반하여 원수가 되었도다

3장

19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20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오나

21 중심에 회상한즉 오히려 소망이 있사옴은

22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시므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23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24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라 하도다

25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26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27 사람이 젊었을 때에 멍에를 메는 것이 좋으니

28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메우셨음이라

29 입을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30 때리는 자에게 뺨을 향하여 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31 이는 주께서 영원토록 버리지 않으실 것임이며

32 저가 비록 근심케 하시나 그 풍부한 자비대로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니라

33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8월 29일 (토)

아침마다 새로운 사랑

기도로 시작합니다.

오늘 나에게 가장 와닿은 말씀 구절을 적어 보세요

● 오늘의 묵상

무너진 예루살렘 옆에서 예레미야는 애가, 곧 슬픈 노래를 불렀습니다. 애가는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대로 한 글자씩 시작하는 시입니다. 슬픔을 대충 넘기지 않고 첫 글자부터 마지막 글자까지 끝까지 우는 것입니다. 믿음은 눈물을 생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눈물의 책 한가운데, 가장 깊은 자리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시므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우리가 망하지 않은 것은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은 어제 남은 것이 아니라 아침마다 새로 옵니다.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셨던 예수님은 우리가 받을 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셨습니다. 내일 주일, 바로 이 말씀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소망은 힘든 일이 다 끝난 뒤에 오는 것이 아니라, 힘든 일 한가운데서 아침마다 찾아옵니다.

● 생각 & 적용 질문

슬프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솔직하게 울면서 기도해 본 적이 있나요? 오늘 아침 새롭게 느낀 하나님의 사랑 한 가지를 적어 보고, 내일 주일예배에서 듣고 싶은 말씀을 기대하며 기도해 보세요.

기도로 마칩니다.

주 일 예 배

설교 노트

설교 아웃라인 〈아침마다 새로우니〉

시리즈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5주 · 예레미야애가 3:19–26

말씀을 들으며 빈칸을 채워 보세요.

한 문장 메시지: 소망은 폐허가 (①_____) 뒤에 오는 것이 아니라, 폐허 (②_____)에서 아침마다 온다.

1. 기억하면 낙심이 됩니다 (19–20절)

예레미야는 고초와 재난, 쑥과 (③_____)을 기억합니다.

무너진 것만 세어 보면 마음은 (④_____)할 수밖에 없습니다.

2. 그러나 회상하면 소망이 있습니다 (21–23절)

낙심하던 사람이 "중심에 (⑤_____)한즉 오히려 소망이 있사옴은" 하고 돌아섭니다.

우리가 진멸되지 않은 이유는 여호와의 (⑥_____)와 긍휼이 무궁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⑦_____)마다 새로우니, 주의 (⑧_____)이 크도소이다.

3.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십니다 (24–26절)

무너진 땅에서 남은 것은 하나, (⑨_____) 자신이십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⑩_____) 기다림이 좋도다." 기다림은 포기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예루살렘을 보고 우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진멸을 받으셨기에, 부활의 (⑪_____)이 아침마다 옵니다.

한 줄로 새기기

가을의 첫 주일, 무너진 자리에서 새 (⑫_____)을 맞습니다. 어제의 은혜가 아니라 오늘 아침 새로 주시는 인자를 받습니다.

자유 필기 노트